

해가 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평화변영의 활로를 열려는 거제의 열망과 의지가 더욱 강렬해지는 오늘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봄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본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그 봄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이 주는 여운은 자못 큰것이다.

하늘같이 맑고 따르던 민족의 아버이를 잃고 온 민족이 쏘던 12월의 피눈물이 아직도 채 가서 지지 않은 2012년 3월 조선반도는 또다시 전쟁이나 평화냐, 분렬이나 통일이나 하는 준엄한력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외세와 남조선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은 방대한 병력과 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던것이다. 국지전과 전면전, 《북의 굵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계획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실행되고 공화국의 주요지점을 점령하기 위한 사상최대규모의 상륙작전연습도 벌어졌다. 이 땅은 또다시 전쟁의 수난을 강요하며 다가오는 침략의 발자국소리에 몸부림치고있었다.

이제 조선반도의 정세는 어디로 흐를것인가?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다가들고있던 그 준엄한 시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였다.

평화적인 국경선도 아니고 정전상태로 하여 교전쌍방이 직접 대처하고있는 전조선, 최전방으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사변

로 나라의 최고령도자께서 직접 나가신다는것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예상할수 없었던 일이였으며 적대세력에게 있어서는 급소를 강타당한것과 같은 일대 충격이였다.

돌이켜 보면 주제 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험천만한 이곳 판문점에 대한 역사적인시찰을 단행하시였다. 그때에도 일군들과 판문점의 초병들이 위험하다고 더 나아가가지 말아달라고 아뢰이며 앞을 막아나섰지만 장군님께서 나눈 뺨치산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초병들이 지켜서있는 판문점에 나가시였다.

그런데 이런 판문점을 두해전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시찰하신것이다. 그날 판문점에 나오시여 대낮에 적의 총구가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판문각로데에까지 서시여 쌍안경으로 남쪽하늘을 바라보시던 원수님의 모습을 비오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걱정을 삼키었다. 그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백두산악과 같은 무비의 담력과



판문점을 현지시찰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

배짱, 단호한 결단력을 지니신 원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단행할수 없는 선군령장의 애국의 발걸음이였기때문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판문점시찰은 그 누가 사회주의 조선을 감히 넘겨다보며 어찌보려고 달려들다면 단호히 요청내버릴 선군조선의 단호하고 역센 기상을 내외에 시위한 역사적사

변이였다.

하기에 온 겨레는 그이의 판문점시찰에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었고 복침을 노리는 적대세력들은 공포와 전율을 느끼지 않은

면 안되었던것이다.

당시 남조선과 해외의 인터넷들에는 이런 글이 련속 울랐다.

《청청하늘에서 섬광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것 같아 깜짝 놀랐다.》, 《미국이 신물이 날 지경으로 자랑하고 일부 〈한국〉인들이 철철같이 믿는 경찰위성, 고공기구, 전자정찰기들은 다 뭘 했던 말인가? 시찰이 어느날 진행됐던지 이번 공개는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습들을 겨냥한 반격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어찌볼수는 더욱 없다.〉는 식의 강력한 배짱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귀난한 구절이 없는데 필자가 볼 때 〈강경자세를 물거품만들기〉라던 비웃하지 않을가싶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판문점시찰은 조국수호를 위한 거룩한 발걸음인 동시에 민족이 바라는 통일을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역사적인 장거였다.

그날 분렬의 상징이고 우

리 민족의 통일념원이 절제어려있는 판문점을 찾으신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 먼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필비의 글발을 한자한자 주의깊게 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다.》, 《미국이 신물이 날 지경으로 자랑하고 일부 〈한국〉인들이 철철같이 믿는 경찰위성, 고공기구, 전자정찰기들은 다 뭘 했던 말인가? 시찰이 어느날 진행됐던지 이번 공개는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습들을 겨냥한 반격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어찌볼수는 더욱 없다.〉는 식의 강력한 배짱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귀난한 구절이 없는데 필자가 볼 때 〈강경자세를 물거품만들기〉라던 비웃하지 않을가싶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오전 시간 판문점에 숭고한 자욱을 새기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비오며 온 겨레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오늘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은 70년을 가까이 하여오고있다. 그러나 천출위인이 계시고 애국의 선군정치가 있어 침략세력의 갖은 전쟁위협속에서도 겨레의 안전은 보장되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살며 복락을 누릴 자주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은 태고적부터 한강도우에 하나의 피줄을 잇고 살며 자자손손 복락하여온 단일민족이다.

그런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두동강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나긴 세월 분렬의 아픔이 얼마나 참혹한것인가를 뼈저리게 강요당해왔다.

하기에 통일은 우리 민족, 조선민족만이 바라는 일이며 이로부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조선민족끼리 풀어야 할 민족문제인것이다.

허나 지난 시기 조선반도의 정세는 다치면 러질듯 한 최악의 전쟁국면이 가로놓이는가 하면 북과 남사이에 열렸던 문이 닫히고 대화와 래왕,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차디찬 기운이 휩쓸어 겨레의 불안과 위구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갈라진 겨레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통일문제에 외세가 끼여드는것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 민족끼리의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봄별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분렬의 동토대를 녹이는 화희의 해살이였다.

그 해빛아래 북과 남의 헤어진 동토형제가 분렬의 장벽을 넘어 한자리에 모여앉아 꿈과 같은 상봉을 하였고 대화와 접촉, 래왕과 협력의 넓은 길이 열리는 경이적인 사변도 이루어졌다.

겨레에게 화희를 주고 통일과 패일을 그려준 우리 민족끼리리념만이 가장 정확한

자주의 길, 통일의 길이라는것을 확신하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소동으로 전쟁위험이 절제 떠돌던 주제 101(2012)년 3월초 위험천만한 열점지대인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일찌기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원수님께서는 판문점로데우에 거언히 서시여 지척에 있는 남뺨땅을 오때도록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역사적인 판문점시찰은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기어이 지르려는 호전세력의 책동을 용납치 않으며 총대로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수호하시려는 선군령장의 단호한 의지와 담력의 과시였고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가 강요하는 민족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시려는 결연한 통일의지의 시위였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그이의 판문점시찰에서 자주통일에 대한 커다란 신심을 새겨안았고 통일의 원수들은 공포와 전율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된 삼천리강도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절세의 위인이 계시고 북남공동선언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머지않아 이 땅우에는 온 겨레가 기쁨속에 일싸안을 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시

판문점에 봄우뢰친다

김송림

두해전 3월

원수님 오셨던 그날

겨레가 러친 감격과 걱정

여기에 다시 러져오르는가

판문점에 봄우뢰친다

오시여 걸음걸음

내짚으신 담력의 발자욱소리는 아

닌가

판문점의 하늘을 흔들며

우렁우렁 울려 퍼진 그 음성은 아

닌가

판문점에 울리는 봄우뢰여

언제 전쟁이 러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그 3월

밀려오는 불구름 맞받아

원수님 오시였거니

누구나 울수 있는 곳이 아니였다

우리 원수님 아니시고선

그 누구도 울수 없는 곳

한자욱도 나설수 없는 판문점

판문점로데우에 올라

쌍안경을 드시여

남녘을 굽어보시던 원수님 모습

그 모습은 무비의 담력, 배짱을 지

니신

천출명장의 모습

아, 그날은

우리 겨레가 운명을 맡길

가장 강하신 수호자를 비온 날

민족을 안아 통일로 이끄실

가장 걸출한 위인을 비온 날

한몸으로 막아주신 전쟁의 불구름

령장의 그 기상으로 울리는 봄우뢰

그 어떤 침략자도 단호히 쓸어

버릴

령장의 그 의지를 안고 울리는 봄

우뢰

침략자의 포성을 짓누르며 울려 퍼지

거니

겨레는 민노라

기운차게 울리는 저 봄우뢰소리에

분렬의 장벽은 무너지고

전쟁의 불구름은 산산히 흩어지리라

는것을

이 땅 삼천리에

통일의 화희성으로 러져오르리라는

것을

뜻깊은 력사의 이날을 잊지 말라고

봄우뢰친다 봄우뢰친다

겨레를 통일로 부르고 부르며

오, 판문점의 봄우뢰

통일의 봄우뢰로 울려 퍼진다

인민사랑의 일화들

앞당긴 착공날,

늦춰진 착공날

주제47(1958)년 3월 어느날 아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갓 풀리기 시작한 일음때문에 대동강의 나무배가 움직이지 못하는것을 보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평양의 도시중심부와 동평양지구를 연결하는 다리는 대동교뿐이어서 배길이 막히면 많은 사람들이 대동교로 에

둘어다니곤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리 건설을 한시도 미룰수 없다고 하시면서 몸소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며 몸소 다리위치를 정하시였다.

그리하여 지금의 육류교 건설은 원래 착공날자보다 3년이나 앞당겨 시작되게 되었다.

천리마거리건설이 예정보

다 석달이나 늦게 시작된데도 깊은 사연이 있다.

주제59(1970)년 1월 중순이였다. 어느날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철거되는 세대들이 겨울에 이사를 하게 하던 곤난한 점이 많을것이다, 지난해에 시작된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어 빨리 완공한 다음 거기에 철거지대 사람들을 옮기고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늘어난 관성렬차선로길이

1 350m라고 대담을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 계에서 제일 긴것은 얼마만이라고 다시 물으시였다.

1 350m라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 수자를 몇번이나 외우시고는 세계적으로 제일 긴것이 1 350m라고 해서 그이상 더 크게 해서 안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이왕이면 관성렬차의 선로를 좀 더 길게 하여 1 500m로 하자고 하시였다.

1 350m와 1 500m. 인민들에게 더 좋은것, 더 훌륭한것이 차례지게 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긴 대비적인 수자인것이다.

본사기자

국제태권도련맹 제9차총회가 진행될 때였다. 최홍희 총재(당시)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태권도라는 간단한 글을 만들어놓고 이 세상에 가날뿐 목소리로 웨칠 때 줄줄기도 하면서 암암한 생각도 들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다. 나의 대부분 인생은 비행기에서 보냈다고 말할수 있다.

가방을 바꾸기 위해서 들리는 집은 캐나다에 있었고 사는 집은 하늘에 있었다. 나의 이름도 하나는 최홍희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다시

찾은 이름과

집

를 받아안았다.

제세하여

있는 태권도의 이름과 집을 다시

찾고 온 세상에 빛내일수 있었

나는 오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나의 이름인 태권도를 다시 찾고 그 어느 왕궁과도 대비조차 할수 없는 나의 집인 태권도전당을

다시

찾은 이름과

집

를 받아안았다.

제세하여

있는 태권도의 이름과 집을 다시

찾고 온 세상에 빛내일수 있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조국은 아이들에 의해 백화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라고 하시였다.

피어린 항일대전의 나날

마안산의 흑한속에서 험벗

은 아이들을 자신께서

시던 모포로 따뜻이 감싸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체취가 스며있는 돈 20원까지도 아이들의 새옷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해야 할 일, 긴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그처럼 많았건만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업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제기하시고 무로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시여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는 시책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는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하시였다. 가장 고결한 미래관, 후대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천진란만한 웃음에서 부강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시며 민족의 운명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애국헌신의 기나긴 장정을 이어오시였다.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친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가 후대들을 위해 선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에 의해 길이 이어지고있으며 이 나라의 아이들이 희망과 포부의 나래를 마음껏 펴고 조국의 기둥, 앞날의 역군으로 자라

고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 추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고 여기에 친히 참석하신 원수님께서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를 비롯한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며 즐겁게 뛰노는 등산길에도 어려웠는것이다. 그이의 후대중시, 미래사랑에 대해 브라질의 한 단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후대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김일성주석께서 온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새 교복을 마련해주시고 새옷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사진찍어

주시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아직도 생생하다. 또한 산골마을에 세쌍둥

이를 위해 직승기까지 띄우신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후대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그 사랑이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조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위해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기울이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덕망과 보살핌속에 지금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새롭게 변모되고있는것이다.

세기를 이어 베풀어지는 위대한 후대사랑의 화원속에 세 세대들이 나라의 아름다운 꽃봉오리,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주인들로 믿음직하게 자라고있는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동성희